

# 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’24.01.24, 한-EU연구협력센터>

## ○ ‘23년도 호라이즌 유럽 주요 국가 및 대학 참여 순위

- 집행위 데이터에 따르면 ‘23년도 호라이즌 유럽에서 가장 많은 연구비를 받은 국가는 독일이었음(아래 표는 ‘23년도 HE 예산 122억 유로 중 국가별 비중)

1	독일(16.25%)	5	이탈리아(7.80%)	9	오스트리아(3.25%)	13	아일랜드(2.24%)
2	프랑스(11.24%)	6	벨기에(7.24%)	10	노르웨이(3.09%)	14	이스라엘(2.12%)
3	스페인(10.97%)	7	그리스(3.75%)	11	핀란드(3.01%)	15	포르투갈(2.11%)
4	네덜란드(9.62%)	8	스웨덴(3.45%)	12	덴마크(2.87%)	16	폴란드(1.39%)

- ‘23년도 호라이즌 유럽에서 가장 많은 연구비를 받은 대학은 다음과 같음(유로)

1	KU Leuven	9,100만	11	Polytechnic University of Milan	4,700만
2	University of Copenhagen	9,000만	12	University of Helsinki	4,603만
3	University of Gent	7,500만	13	Aarhus University	4,430만
4	TU Delft	7,000만	14	University of Bologna	4,113만
5	Lund University	6,340만	15	Leiden University	4,081만
6	Technical University of Munich	6,032만	16	University of Oslo	4,034만
7	University of Utrecht	6,030만	17	Norwegian University of S&T	4,000만
8	Technical University of Denmark	6,000만	18	University College Dublin	3,900만
9	Tel Aviv University	5,300만	19	University of Twente	3,720만
10	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	4,770만	20	Vrije University Brussels	3,700만

## ○ 과기정통부, “우주항공청, 유럽우주국 · 프랑스우주센터와 협력”(1.22)

- 과기정통부 조성경 제1차관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럽우주국(ESA)을 방문해 우주항공청과 우주 협력 추진 방안을 논의
- 면담에서는 한국과 유럽의 위성항법시스템 공존성 및 상호운용성, 한국과 유럽의 심우주 통신망을 통한 데이터 공유 등이 논의됨
- 이외에도 조 차관은 프랑스 국립우주센터(CNES)도 방문해 우주항공 기업을 지원하는 한-불 공동자금 조달 이니셔티브 조성을 논의하고, 재불 한국 과학기술자협회와 간담회를 열어 인재 확보 방안을 논의함

- (기타) ▲ERC, ‘22년 공모에 따라 지원받은 연구자 최종 목록 발표(1.23) ▲ERC, 102개 개념증명(PoC) 프로젝트에 3,600만 유로(1.18) ▲유럽우주국(ESA), 화물 서비스 차량 개발을 위한 공모 개시(1.18) ▲캐나다, 대학 연구 보안 강화로 중국과의 관계에 영향(1.18) ▲다보스포럼, 유럽의 과학적 우수성 등에 대해 논의(1.18) ▲집행위, 유럽 단일연구공간 정책 플랫폼(ERA Policy Platform) 출시(1.22) ▲집행위, 개편된 중소기업 펀드(SME Fund) 출시(1.22) ▲연구평가개혁연합(CoARA), 참여 기관 600개로 확대(1.17) ▲집행위, 세계 교육의 날 기념 공동 성명 발표(1.23)